

PRIME 사업 초석 쌓기 주목

은 PRIME 사업에 대해 별반 관심을 가지 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PRIME 사업을 소개하는 교육부의 보도자료 어디 에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효용 에 대해서는 기재해놓은 바가 없다. 기업 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면 기업이 정부의 PRIME 사업에 호응할 이유가 하등 존재 치 않는다. 돌이켜보면 기업은 항상 '사회 수요에 맞지 않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면서 대학에 비판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당사자다.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대 학의 체질개선으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 한다는 PRIME 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것을 이끌어 낼 교육부의 대안제 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회의론'의 지적 사항이다.

중앙대, 적극적인 행보 눈길

앞서도 언급했듯, 다양한 우려와 회의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현재 각 대학 은 여전히 이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준 비에 돌입하고 있다. ACE사업 같은 다른 예산지원 사업에서도 '자발적 정원 감축' 을 비롯한 학사구조개편을 진행한 대학에 기산점이 부여되므로, 큰 예산이 걸려있는 PRIME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에서다.

PRIME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곳은 중앙대학교(중앙대)다. 중앙 대는 지난달 2주에 걸쳐 사범대학, 경영경 제대학, 인문대학, 자연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PRIME 사업의 취지와 배경을 알리는 '대학 비전 달성과 프 라임 사업' 설명회를 열만큼 구성원간의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어 PRIME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 업계획을 논의하는 대표자 회의를 진행 하기도 했다. 이 회의는 구성원 간의 합의 를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밖에도 중앙대 측 에서는 PRIME 사업을 담당할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해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도 자체 적인 계획에 공과대학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 PRIME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 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내년에 공과대학 을 신설해 입학 정원을 60명 가량 늘릴 예정이다. 때문에 PRIME 사업의 선정 여

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정원 조정 및 재배치 규모'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자체적인 분석 결과다. 그래서 숙명여대는 PRIME 사업 선도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 도록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학사 구조 개편과 학사제도 개선안을 체계적으 로 마련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는 PRIME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프라임 사업 준비를 주 관하고 있는 미래정책원 측은 '아직까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답변이 불 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이는 지난 7월에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러면 8월 말 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이라고 답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행보다. 사업 선정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타 많은 대학들처럼 전략 노출을 우려해 방어적인 답변을 고수하는 중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원에 대한 정보의 장막' 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결론이 도출 되든 커다란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구성 원은 '통보' 형태의 결정에는 크게 반발 할 가능성이 농후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각도에 걸친 취재 결과, 우리학교 의 사업 준비 행보는 양 캠퍼스 간 논의는 물론 캠퍼스 내부에서의 구성원 간 논의도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구성원 간 마찰에 관한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유사학과 통·폐합 캠퍼스별 특성화 기회 될 수도

적어도 우리학교에게 있어서, 이 PRIME 사업에 대한 준비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되는 사안도 아니고, 대학본부 차원에서 결정해 도 되는 사안도 아니다. 이는 단순히 큰 예 산이 걸려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PRIME 사업은 그 '참여 조건' 자체가, 우리신문 이 최근 <하나의 경희> 기획 시리즈를 통 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유사학과 통·폐합문제'와, '캠퍼스별 특성화' 작업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할 중요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PRIME 사업의 학사

〈PRIME 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안)〉		
사업 유형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유형별 내용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 선도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취업 중심의 학과 개편과 학생 중심의 학사구조 개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도입과 학생의 진로·경력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직종, 융합전공 등 창조 경제와 미래 유망 산업 인재 양성 창업학과, 사회 맞춤형 학과 등 선도적 교육모델 도입
참여 조건	<p>입학정원 10%(최소 100명 이상) or 200명 이상 이동</p> <p>동일 계열 내 이동은 50%만 인정 (계열 기준은 대교협 표준분류체계)</p>	<p>입학정원 5%(최소 50명 이상) or 100명 이상 이동</p>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500억원 (9개교 내외) 대학별 평균 150억원, 최대 3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500억원 (10개교 내외) 대학별 평균 50억원
권역 구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	5개 권역으로 구분, 균형 지원

〈PRIME 사업의 학사 구조 개편과 학사제도 개선(예)〉

구 분	학사 구조 개편		학사 제도 개선	
	대학 내	대학 간	정원 유연화	다전공 활성화
양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학과 신설 학과 증원·폐지 또는 강축 학문간 융복합 캠퍼스간 정원조정 	대학간 정원조정 (교원이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적 정원제 자유 학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질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약정형/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 등 현장 실무 능력 제고 다양한 기초학문 학업 이수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다전공 활성화,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등 문제해결형·통섭형 인재 육성 		

구조 개편과 학사제도 개선 예'에 따르면,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과 신설 ▲학과증원·폐지 또는 강축 ▲학문간 융복합 ▲캠퍼스간 정원조정과 같은 직접적인 학사 '구조'를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학과 정원 조정을 활발하게 할수록 사업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국제캠퍼스에는 응용학 문 위주의 학과들을, 서울캠퍼스에는 순수 학문 위주의 학과들을 개설해 '캠퍼스 이원화'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국 제캠퍼스가 여전히 대외적으로 '분교'라는 오해를 받고 있을 정도로 캠퍼스별 정체성 확립이 모호한 상황이다. 게다가 도통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유사학과 논란은 우 리학교의 이런 '아킬레스 건'을 계속해서

찌르는 이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학사구조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PRIME 사업이 요구하는 학사구조 개편작업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당 쓸고 동전도 줍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신문 지령 1600호 특집호로 발행되는 다음 호에서는 이 '하나의 경희'를 테마로 한 특집기사를 전개 하며, 이 PRIME 사업과 '하나의 경희'가 만날 수 있는 접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면에서 이어짐

일례로 창업학과나 사회 맞춤형 학과 등 선도적 교육모델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PRIME 사업의 선도 대학으로 유치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까다로운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의 주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 여건과 내용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 유치와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설령 학사조직 확대와 학생 증원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 역량을 키워야 할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대 학과 기업의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학교육의 질적 개혁을 달성 하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죽소 또는 폐지되는 학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해당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해당 학과 교원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대책까지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정량적, 정성적으 로 평가해 오는 3월 즈음에 PRIME 사업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 학사구조 개편 분야와 정원 조정 규모,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 전기 국제대학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 모집 분야: 국제통상학과 / 국제개발학과 / 국제경영학과

- 모집인원: 석사과정 00명 / 박사과정 00명 (국제개발학과에 한함)

- 지원자격: 석사과정: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전형방법: 국내거주 지원자: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해외거주 지원자: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 전형일정: 서류접수: 2015년 11월 16일(월) ~ 11월 27일(금)

-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2015년 12월 12일(토) 오후 12시 30분

- 해외거주 인터뷰: 2015년 12월 7일(월) ~ 12월 11일(금) 기간 중 개별인내

- 합격자 발표: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예정)

- 제출서류: 입학원서(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전형문서: 1부(영어, 평점 및 백분율을 성적 기재)

- 추천서 2부(기타 4부(국문기능,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한글로 번역)

- 반영함만: 사진 1매 (3cm*4cm)

- 전형료: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입금)

- *입금계좌: 하나은행 906-91002-76604

- ※ 해외자에 한함

- 공·영어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국문·영문 번역 공증서(출생증명서, 전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영문 학업연구계획서(자유양식,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 영문 이력서(자유양식,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 원서접수: E-mail 접수: gsp@khu.ac.kr
우편접수: [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동부에 '입학원서 재증' 게재)

- 다양한 장학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료 100~50% 면제

- 학사조교 근무자 수료로 전액 면제 가능

- 기계 과정 대상 수료로 100~25% 지원

- 기술사 입사자 전문에게 기술사 50%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2016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조세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조세법전공

● 정학제도

구 분	정학금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입료 2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공공기관장학	수입료 2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외국인장학	수입료 30%	정부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수입료 2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